

Grace

은혜 2020.3

vol.206 / March

강남중앙침례교회

CONTENTS

- p.2 담임목사 칼럼(V. 부족함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있다)
- p.3 44주년 기념예배 / 차세대교육국 현신예배 / 30년 근속
- p.4-5 김충기 목사의 삶과 사역
- p.6-7 목장의 첫걸음(기슴이 다시 됩니다)
- p.8 새가족 / 연탄봉사
- p.9 국내외 선교편지
- p.10 쓰임 수상자 글
- p.11 구약개론 / 신양의 베이직
- p.12 광고 및 100만 기도표





V.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있다

부족함은 행복을 깨우쳐 준다

여유는 가진 사람만의 뜻이 아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더 행복을 느낄 때도 있다. 강둑에서 서서 거지 부자가 강 너머를 쳐다보고 있다.

그곳에는 동네에서 제일가는 부잣집이 활활 불타고 있었다. 거지 아들이 말을 시작한다.

“아빠, 저 부잣집이 다 타버려서 어떡해요. 진짜 불쌍해요.” 그때 아빠의 대답이 기관이다.

“우린 탈 게 없으니 얼마나 행복하니. 저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일까, 아들이 신이 나서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 아빠 최고” 그때, 아들의 뒤통수를 때리며 던진 아빠의 촌철살인한 말이다. “그러니, 넌 아빠 잘 만난 줄 알아.”

이 정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행복의 조건

행복을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한 곳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일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무엇인가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행해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금줄이 필요한자/ 텁박받는 자” 왜, 예수님은 가진 사람들을 보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일까? 가짐과 못 가짐은 행복과 무관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 아니, 부족한 사람에게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가장 큰 허무함과 공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가 아니라, 정상에 서 있을 때 찾아온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기치 않은 공허가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다.

부족한 용모와 행복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를 가진 사람 옆에 함께 있어 주는 사람들은 모두 고마운 사람들이다. 내가 잘 생겼다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어쩌면 귀찮은 일인인지는 몰라도, 나의 부족한 용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되어주고 남편이 되어주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부족한 체력과 행복

겨우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진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일까? 초등학교 때 나는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다. 그랬더니, 항상 학생들이 내 뒤에 따라다녔다. 그런데, 따라다니는 아이들은 많았는데 친구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에 입학하고서였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더 많아진 학생들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싸움을 하지도 않았고, 싸움 일등 하는 아이라는 이미지도 벗을 수 있었다. 그랬더니, 많은 친구가 생겼다. 나보다 힘 없는 친구도 다가와서 말을 걸고, 나보다 키가 작은 학생들도 만만하게 보고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었다. 싸움 잘했던 초등학교 때보다 싸움을 못 했던 중학교 때 돌아보면 훨씬 행복했다. 적당한 체력을 가진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최병락 담임목사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첫째, 먹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 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 절반 정도 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겨우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씀씨

플라톤은 이런 적당한 부족의 상태에서 비로소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플라톤이 말한 부족한 다섯 가지가 행복이 될 수 있을까? 먹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 한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재산은 모두 값지고 소중한 것

이기 때문에 그렇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가진 것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부족하게 떠난 여행이 더 행복하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 돈을 많이 가지고 간 사람과 돈을 적게 가지고 간 사람 중 누가 더 여행을 즐겼을까? 정답은 돈을 적게 가지고 떠난 사람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해외에 갈 때 때 키지로 된 여행상품을 사서 떠난다. 공항에 도착하면 누군가가 태우러 나오고 최고 좋은 호텔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부터 정해진 스케줄로 여행을 하고 천절한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이미 차려져 손님을 기다리는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관광 상품을 파는 가게로 향하여 기념품을 산다.

저녁이 되면 호텔에서 삼삼오오 함께 모여서 고향에서 가지고 온 오징어를 꺼내 씹으면서 정치 이야기나 새로 나온 명품 이야기로 밤을 지새운다. 이렇게 최고의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공항에 태워주면 몇 문의 팁을 주고 비행기에 오르면 되는 것이다. 돈은 이렇게 여행자에게 편리함을 준다. 그러나 왠지 그 여행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이 되든지 아프리카가 되든지 아시아가 되든지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느끼게 된 한 가지가 있다면, 돈이 있으면 모든 나라에서 누리는 혜택이 똑같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최고 좋은 호텔과 미국의 최고 좋은 호텔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편안한 침대, 미국식으로 나오는 호텔 음식, 언제나 연락이 되는 인터넷 등 모든 것이 고국에서 누리는 편리함을 그대로 느

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도 특이한 것이 없다. 그런 호텔 안에 있으면 그곳이 아프리카인지 미국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특이한 것이 없으니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는다. 그러나 돈이 없이 해외여행을 하면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먼저 들고 온 지도를 펼쳐보고 한참을 연구해야 한다. 스스로 여행지를 정해야 하고, 가장 먼저 가볼 만한 곳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 가장싼 교통편을 찾아 이동한다.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지만, 사람이 고는 ‘릭샤’라는 인력거를 타고 이동해보기로 한다. 덜컹거리면서 사람들을 빠져나가는 그 아슬아슬한 장면에 오금이 조려오지만, 돈을 아껴야 한다는 마음에 참아야만 한다.

첫 번째 방문한 관광지에서 지불한 입장권 때문에 본전을 뽑을 때까지 꿈곰하게 관찰하고 둘러본다. 한참을 걷다 보면 배에서 신호가 온다. 그런 3세계 여행에서 만나는 샌드위치의 가격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할 수 없이 그곳의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가장싼 음식을 구해서 먹어야 한다. 변변한 젓가락이나 포크도 없이 손으로 현지 음식을 먹게 된다. 그리고 또다시 인력거를 타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을 한다. 숙소는 당연히 가장싼 현지인의 집에서 민박하고 그들이 주는 밥을 먹어야 하고 밤새 모기와 사투를 벌여야 한다.

이렇게 일주일을 여행하고 나면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물골은 말이 아니게 된다. 다시 인력거를 이용해 공항에 도착하여 비로소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 일주일 만에 현지인이 되어있는 자기의 모습에 적지 않게 놀라게 된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귀향길에 몸은 지칠 대로 지쳐있지만, 웬지 모르게 마음속에는 행복이 가득함을 느끼게 된다.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보다 그 나라를 가장 깊이 있게 체험하고, 열 번을 고급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보다 더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작년의 그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다시 그 나라로 날아가고 싶은 마음에 한동안 마음이 뒤틀어지기도 한다. 아니,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에 행복이 밀려온다.

부족한 돈을 가지고 떠난 여행이 훨씬 행복하다. 부족한 돈 때문에 훨씬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 훨씬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땅을 더 오랫동안 밟을 수 있게 되고, 현지에서 먹었던 음식의 맛이 평생 뇌 속에 저장되어 배고플 때마다 떠올라 군침을 삼키게 한다. 그런 불편한 여행은 오히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마음은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돈은 이렇게 여행자에게 편리함을 준다. 그러나 왠지 그 여행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병락, 「부족함」, 두란노, 2015
3월 10일 2015

창립 44주년 기념예배



씀이었습니다.

최병락 담임목사님의 성경 봉독 이후 조용준 집사의 지휘로 드려진 연합찬양대의 찬양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귀한 목소리의 연합이었습니다. 이후 44주년 기념예배에 특별히 초청된 울산침례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신 김종해 목사님께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유마와 위트로 편안함을 담아 귀하고 기슴 벅찬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설교를 마칠 무렵 오래된 사진 한장을 보여주셨는데 최병락 담임 목사님이 침례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떡잎을 알아보신 김종해 목사님은 당시의 최병락 성도를 귀아하셔서 울산침례교회 전도사 사역을 맡겼고 장차 담임 목사로 세우고 싶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병락 목사님이 그 초청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미국 유학을 떠나 매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마치며 모두에게 물으신 말씀, “그때 내 말 안 듣기를 잘 했지요?” 이 짧은 한 문장에 한 유학생(최병락 담임목사님)의 지난 20년간의 사연과 그 유학생을 능력의 사역자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역사가 절절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어주신 목사님으로부터 이 사랑스러운 질문을 받는 성도로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예배 후 모든 이가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비된 저녁식사는 정말 맛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낙낙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종이 복음을 전했습니다.”라는 김종해 목사님의 기도와 설교에서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목사님 앞에 앞서지 말고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알고 맡은 일을 감당해 내는 척하고 충성된 어린 종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1년의 시간의 보내고 맞이하는 창립 45년은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 역사를 마디마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 편집위원 김영숙 |

파란 머플러들의 행진 (차세대교육국 현신예배)

1월 31일에 드려진 금요성령집회에는 파란 머플러를 맨 사람들이 은혜채를 맨 앞 성가대석에 앉았습니다. 약 150명 모두 차세대교육국 교사들입니다. 이 날은 차세대교육국 교사 현신 예배였습니다.

멜기세덱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현신예배는 김영광 목사님(교육국 총괄)의 사회, 임병길 장로님(교육위원회)의 대표기도, 교육국에 대한 영상을 이어가며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에 시상식은 공로상 10명, 모범교사상 4명, 우수출석상 40명, 10년 근속상 9명, 20년 근속상 4명, 30년 근속상 2명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30년 근속상을 두 명이나 시상할 수 있어 더욱 이 현신예배가 뜻깊었습니다.

이번 현신예배는 특별히 차세대교육국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모여 ‘한마디라는 천왕’을 특송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라는 천왕의 기사처럼 생명을 살리는 교사들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천왕이었습니다. 학부모의 감사로 가득한 마음을 이어 받아 최병락 담임목사님은 교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다음세대를 위한 교사의 필요성을 설교하셨습니다.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던 현신예배를 통해서 현신을 다짐한 차세대교육국은 2020년을 달려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3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을까?

우리 교회에 1989년 9월에 첫 봉사를 디디고 아마도 그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로 햇수로는 31년이 되지만 중간에 1년을 새가족위원회 봉사를 떠나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30년 동안 주일학교 봉사를 한 셈이다. 30년 근속상을 받은 나에게 주위 분들이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30년 동안이나 봉사를 했어요?” 스스로에게도 물어본다. “어떻게 했을까?” 오직 온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나는 말이 없다.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것은 21살 때이다. 그 뒤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면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러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다. 초등학교 교사인 나로서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가르치는 일인 것 같아 교사로 자원한 것이다. 최소한 이 일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빛 날이 없다는 생각이었다.

주일학교 봉사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도 교회에 오지 않아서 슬픔을 넘어 쟁취해온 일, 몇 주 동안 오지 않던 아이가 횡단보도 너머로 걸어오는 모습에 감격하여 ‘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말씀을 온 몸으로 깨닫던 일, 일일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손으로 만들며 아이들을 만날 일에 설레던 일, 공과를 열심히 준비하여 간 날 말씀을 쑥쑥 빨아들이듯 듣던 아이들의 모습에 새 힘이 솟던 일 등등 봉사하는 동안 슬럼프도 없지 않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을까? 결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냈을 것 같진 않다. 되돌아보면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나를 끌어간다는 말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나를 쓰시면서 지난 30년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뿐이다.



| 30년 근속상 수상자 최선희 권사 |



“불의 사자” 김충기 목사의 삶과 사역

2019년 12월 25일 오후 4시 “불의 사자”로 불린 성령사역자 김충기 원로목사님이 소천했다. 은혜자를 통해 원로목사님이 이 땅 가운데 남긴 사역을 2회에 걸쳐 정리하고자 한다. 1부는 삶의 일대기, 2부에서는 평가에 관해 다룰 것이다.

1. 성장기

김충기 목사는 1932년 6월 19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김사인은 유교적 전통을 가졌으나, 어머니 김경자는 결혼 전부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30년간 남편의 모진 박해를 받았다. 머리카락을 잘리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박해를 받은 다음날에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놓고 교회에 갔다. 김충기 목사는 이러한 어머니의 모범을 통해 신앙을 배웠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결단이 확고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김충기 목사가 한 달에 몇 번씩 드리는 제사 음식을 못 먹게 하였고, 일제 강점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신사참배와 주일학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늘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믿음과 철저한 신앙양육은 김충기 목사가 목회자로 성장하게 된 큰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아버지의 팝박 속에서 신앙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러한 팝박은 김충기 목사의 동생 효부가 생에 빠져 죽게 되자 극에 달했다. 예수 때문이라며 어머니와 김충기 목사는

아버지로부터 심한 매질을 당해야만 했고 아버지는 일을 나팽개 치고 술과 노름으로 시간을 하비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팝박과 가난의 어려움은 김충기 목사의 인내 또한 자라게 했다.

어머니를 따라 처음 신앙생활 한 곳은 원당침례교회였다. 원당교회는 강경침례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해져 1905년에 성도들의 자원으로 지어진 교회였다. 그러나 신사참배와 황궁오용배를 거부하던 동아기독교는 일제의 힘으로 세운 교회였다. 당시 김충기 목사는 아직 신학 교에 입학하기 이전이었지만, 박기양 목사는 김충기 목사로 하여금 교역자가 없어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망월침례교회에서 사역하도록 하였다. 망월침례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는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젊은 신학생이었던 김충기 목사에게 목회생활은 그리 쉽지 않았다. 생각처럼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배운 신학과 현장 목회의 운도를 알게 되는 연단의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도 없어 방치되었던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였고, 교인들은 김충기 목사의 방에 놀라와 밤이 늦도록 성경이야기를 듣고 했다. 그리고 김충기 목사가 마을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며, 성경이야기를 구연동화로 재미나게 풀어주자 많은 아이들이 김충기 목사를 따르며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였다.

1958년 8월, 김충기 목사는 부여군 세도면에 위치한 반조원침례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반조원침례교회에서 망월리의 빌이었던 아내 박인애 사모를 만나 1958년 10월 18일 박기양 목사의 주례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전도사 부부의 삶은 그리 녹녹하지 않았다. 당시 사례비로는 죽



1. 세계 침례교인 대회
2. 기도하는 김충기 목사님
3. 미사리 일만명 침례식에서 침례를 주시는 김충기 목사님
4. 김충기 목사님, 김인애 사모님 부부의 은퇴 기념 사진
5. 김충기 목사님과 어머니 김경자 권사님
6. 칠판 설교하시는 김충기 목사님
7. 양수리 양관에서의 집회
8. 여의도집회
9. 가나선교

을 끊어 먹기도 어려워 박인애 사모는 파출부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야 했다. 쌀이 자주 떨어져 남편의 밥은 차려주어도 박인애 사모는 굶는 날이 많았다.

가난도 문제였지만 사역은 더 어려웠다. 처음 80명이었던 교인은 점점 줄어 12명이 되었다. 가난과 사역의 어려움은 김충기 목사를 절망으로 밀어 넣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확신이 없었고, 그의 마음에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

1960년 8월, 김충기 목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한 평신도의 권고로 김충기 목사는 계룡산 정상 금잔디밭 부흥집회에 참석하였다. 김충기 목사의 평소 예배 모습과는 다른 복을 치고 나팔을 불고 손뼉을 치는 집회의 모습에 처음에는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 곳에 오래 있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김충기 목사가 기도를 시작하자 마음을 진실된 회개와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방언이 자신의 입에서 터지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집회 일정을 마친 그는 몸과 마음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

교회로 돌아와 시작된 철야 기도는 8월에 하산하여 다음 해 5월까지 강력한 성령 체험을 경험하며 지속되었다. 기도하다 쓰러져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기도했다. 강력한 성령 충만을 체험한 김충기 목사는 깊은 회개로 기도의 문이 열렸고, 깨닫지 못하던 말씀의 계시가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 김충기 목사가 변화되자 그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변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6월 첫째 주일, 김충기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자 성도들에게 전정한 회개가 솟아났고, 성령께서 뜻대로 역사하셨다. 이날부터 매일부흥회가 50일간 지속되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설교에 능력이 있고 교회는 늘 차고 넘치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매일 철야 기도회를 하니 식사를 하다가도 자고 일을 하다가도 즐겼다. 그래서 김충기 목사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점을 재웠는데, 누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에 배 시간만 되면 모두 깨어나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한 김충기 목사는 부흥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계룡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오관석, 안중모 목사 등과 함께 ‘세계기도동지회’를 구성하고 함께 교회 부흥사역을 위해 힘썼다. 이렇게 능력을 받은 부흥사들은 1970~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김충기 목사와 사모는 열심히 기도하였고 점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역의 열매는 부흥으로 나타나 10명이었던 성도는 700명으로 늘어났다. 부흥회 때에는 더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모였고, 하나님께서는 김충기 목사의 설교를 통해 역사하셨다.



3. 부흥사역의 시작

1962년 김충기 목사는 4년 간의 반조원침례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함열침례교회에서의 사역을 시작했다. 함열침례교회는 인수집사가 담임목사를 구단해서 내보내는 등 인수집사에 의해 좌우지되는 분쟁이 심한 교회였다.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간 김충기 목사는 부임한 첫 예배 때에 “이 교회는 밀 떨어진 가마솥 같으니 쇠방치로 부수어서 용광로에 넣어 새 술을 만들려 한다.”고 담대히 선포했다. 그러자 그 인수집사는 김충기 목사가 건방지다며 추방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김충기 목사와 사모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인수집사가 앉았던 의자로 고치지 못한 중병을 김충기 목사의 기도를 통해 낫게 하셨다. 방해꾼이던 인수집사가 참 일꾼으로 변화된 것이다.

김충기 목사는 매주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출타하였으나 금요일 밤에는 항상 함열침례교회에서 철야예배를 인도했다. 열정의 설교와 기도가 있는 철야 예배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으며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가득했다. 그 중에 서울에서 공부하고 온 출명받는 젊은이였으나 관절의 마디가 굽어지고 온몸이 떨리는 불차병을 앓은 최향행이라는 성도가 있었다. 그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청할 때에 김충기 목사와 부흥회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끊임없이 그 형체가 갑자기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다가, 곧 구부러진 다리가 펴지고 방언을 성큼성큼 걸어간 것이다.



부흥회 스케줄이 2년 후까지 잡혀있는 상태 1965년이 되었다. 그런데 33년 된 성산장로교회의 한 집사가 김충기 목사를 찾아와 자신의 교회에서 집회를 열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그래서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성산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10여명이 모인 그곳에 어린 꼽추 자녀를 둔 어머니가 김충기 목사 앞에 데려와 기도를 요청했다.

김충기 목사는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교회들의 개척을 지원하였다. 2년간 물질과 인력을 부족해 없이 지원하고 자립한 이후에는 돋립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1976년 육군제일교도



소의 희망교회부터, 고성중앙침례교회, 강원중앙침례교회, 안산 한생침례교회, 천안 남부침례교회, 충남 금산침례교회, 경남 한려 중앙침례교회 등 국내 30여개 인도, 필리핀, 브라질, 인도네시아, 대만, 아프리카 가나 등 20여개의 해외 교회, 수도근교 교회 건축, 해군본부 교회의 지원을 통해 국내의 선교를 지원하였다.

김충기 목사는 또한 지교회들도 세웠는데, 1997년에는 분당 강남 중앙침례교회(현 꿈꾸는 교회), 2001년에는 일산 강남중앙침례교회를, 2002년에는 용인 강남중앙침례교회(현 하나님교회)가 개척되도록 지원했다.

5. 교단의 부흥

김충기 목사는 교단을 사랑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열심을 내었다. 그는 1988년 3월 침례회보 사장으로 취임하여 교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월간지로 발간된 것을 주간지로 증간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또한 제 19대 한국기독교부흥사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다음해인 1989년에는 제 45대 총회장으로 취임하여 1990년에 있을 제 16차 침례교세계대회를 준비하였다.

김충기 목사는 제 16차 침례교세계대회의 대회장으로 참석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고대하며 침례를 받는 의식에서 김충기 목사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이 여기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도 하였다. 그 외에는 1991년 한국기독교기원총연합회 총회장,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세진회 이사, 군선교 회 이사 등 교단과 초교파적 사역에 헌신하였다.

김충기 목사가 교단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교단의 부흥에 이바지한 것이다. 1946년 동아기독교의 교세는 남한교회 40개로 약 350명의 교인에 불과했다. 1952년 미국 남 침례교의 한국선교부가 창설되어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한국 침례교는 종회 분열시대(1959~1968년)를 맞이하며 부흥의 기회를 더디게 하였다.

김충기 목사가 교단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교단의 부흥에 이바지한 것이다. 1946년 동아기독교의 교세는 남한교회 40개로 약 350명의 교인에 불과했다. 1952년 미국 남 침례교의 한국선교부가 창설되어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한국 침례교는 종회 분열시대(1959~1968년)를 맞이하며 부흥의 기회를 더디게 하였다. 그래서 침례교단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하였고, 이단으로 불리어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김충기 목사의 교단을 초월한 부흥 사역을 통해 침례교회의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교단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6. 사역의 마무리

김충기 목사는 침례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을 졸업한 후, 한국 침례교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친신대를 비롯해 미국 그랜드캐나다 대학교와 텍사스의 델라스침례대학에서 명예 신학 박사학위와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4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늘어난 성도로 인해 교회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김충기 목사는 교회 건축 준비를 위해 먼저 금요일 밤 철야기도회를 시작하였다. 1977년 5월 30일에 교회 신축 부지를 매입하였고, 같은 해 11월 14일 교회 건축 기공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1978년 11월 19일 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고, 교회 공사는 1980년 9월 27일에, 조경, 마당 포장, 부대시설 공사는 1981년 6월 14일에 완료되어 교회 봉헌 예배를 드렸다. 교회 건축과 함께 장년 교인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도 급속히 성장하였다. 교회는 개척 10여년 만에 교역자가 20명, 행정 간사가 20명, 직분자 800명, 재적 성도 1만 명의 교회가 되었다. 또한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이 2,500명에 달하였다. 따라서 1983년 교육관 기공예배를 드리고 대규모의 교육관이 세워졌다.

김충기 목사는 1977년 교회 건축과 동시에 기도원으로 적합한 부지를 찾기 시작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도원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다가 1980년 양평 청계산 기슭에 기도처를 구하였다. 1982년 8월 28일 기공예배를, 1995년 9월 17일 ‘양수리 수양관’ 봉헌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곳에서 김충기 목사는 신상부흥성회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봄과 가을에는 목회자 세미나를, 여름과 겨울에는 교파를 초월한 많은 교회들 수련회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슬픔으로 다가왔다. 한국교회 부흥의 큰 벌이자 꽃피는 침례교회를 이끌었던 김충기 목사가 향년 88세의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긴 것이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에 김충기 목사의 소천은 침례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크나큰 슬픔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 정리 안병국 목사 |

참고자료 회고록 ‘나의 나 된 것은’(이옥주), ‘강남중앙침례교회 창립 40년 사(경과홍보)’, ‘김충기 목사와 한국교회 부흥운동’(피영만), ‘한국 침례교 부흥사 오전’, 김충기 목사의 삶과 설교 분석을 통한 현대 설교적 적용’(이영병)

가슴이 다시 뛩니다.

목장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을 때는 막연한 동경심으로 들떠 있었고, 준비를 시작하고서는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에 얹눌렸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매일 매일의 역사를 보며 가슴이 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목장교회 이야기입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처음 모든 사역자들을 모으시고 WORLD 비전 캐스팅을 하실 때 참석한 모든 사역자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저도 WORLD 비전으로 새롭게 비상하게 될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상하는 우리교회의 사역자로 나도 함께한다는 설레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장교회에 대한 밀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 비전에 함께 할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문득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풍경을 보았지만 정작 그 풍경을 그려내야 하는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저에게 맡겨진 도화지가 불풀없는 그림으로 채워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4년 한해를 보내고 9월이 되어 목자훈련학교가 시작되었을 때, 300명이 훌쩍 넘는 예비목자들로 은혜채플이 가득 차고 담임목사님의 첫 강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불안감은 기대감으로 바뀌었고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기적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40년이 넘게 유지되던 기존의 교구와 구역을 1년이 채 안되는 짧은 준비를 거쳐 새롭게 교구를 개편하고 목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한국교회에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의 체질이 바뀌는 일이고,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 일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끓어주시고 목장으로 비상하는 푸른 꿈을 함께 꾸게 하셨기에 이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교구의 편성은 오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모니 예배를 통한 담임목사님의 시니어미니스트리 비전캐스팅에 모든 시니어 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큰 기대감으로 함께 해 주셔서 작은 진통도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

제가 틈만 나면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각 교구에 목양장로로 세워지신 여덟 분의 장로님들이십니다. 교구에 한분씩, 목자들의 목자로서 새로운 목장교구를 세워나가야 하는 어려운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맡아주신 것도 자랑이지만 꼭 어울리는 옷을 입으신 것처럼 각 교구의 목



자와 목장들이 어려움 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은 리더쉽과 어머니같은 세심함으로 교구를 잘 세워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분들이 안계셨다면 목장으로의 변화는 참으로 요원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목자들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목자가 없다고 스스로 자원하여 목자가 되신 분도 있고, 이미 많은 목원들이 몰려서 3분기한 목장도 있습니다. 분가를 해야하는데 예비 목자가 없어서 기도 중에 있는 목장도 있고, 적은 목원을 품고 성장하여 분가할 각오를 다지는 목자와 목장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지원팀은 각 목장의 상황을 파악하여 가장 합당한 목장으로 목원을 배정할 준비를 하고 있고, 새가족은 새가족 중 어떤 분도 누락 없이 목장에 잘 인도될 수 있도록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행사지원팀은 목양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신발끈을 조이고 있고, 심방팀은 심방이 필요한 어떤 목원이라도 찾아갈 준비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협력이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목장을 기대하며

요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목장교회를 기대하는 것으로 가슴이 됩니다. 이제 목장 곳곳에서 기도하는 소리와 응답의 간증들이 들릴 것이고, 목장을 통해 진정한 성도의 교재와 연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장이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이웃에게 칭찬 듣는 교회의 소식도 들릴 것이고, 목장이 전도하고 목장이 선교하여 날마다 새생명이 움트는 생명력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목원이 될 때 우리가 올라서서 보게 될 새로운 역사의 지경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W)에 전념하고 목장이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고(O), 합심하여 지역사회를 돋고(R) 전도하는(L) 제자가 된다면(D) 하나님께서 담임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신 W.O.R.L.D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 이 일에 주역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 O(Oikos) 김수용 목사 |



첫사랑의 회복을 소망케 하는 목장 예배

세상에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화두로 삼아 열정을 다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여성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여 전략투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 더하여 또 한 번의 영적 은퇴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태이밍에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무장로 은퇴에 딱 맞춰 담임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따라 목자훈련학교를 이수하게 되고 2020년 2교구 목장으로 영적 2모작을 시작하게 되었다.

목자훈련을 받으면서는 김충기 원로목사님께 받았던 예름방학도 없이 일 년 52주 구역예배를 드린던 스파르타식 구역장 훈련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구역예배 참석하기 싫어 구두를 숨겨놓고 집에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은혜 받아 가장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던 구역원들, 발 디딜 틈도 없는 단칸방에서 겹쳐 앉아 예배를 드리던 추억, 그러한 첫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기도하는 목장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 내 심령 뿐 아니라 우리 강종침이 부흥되리라는 소망에 기쁨이 벅차오르고 있다.

우리 2교구는 교구 담당 이운섭 목사님과 부부목자 8가정, 성글목자 8명, 목원 2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자가 임명되고 목원들이 배정되자 우리 목자들은 함께 모여 예수님이 닮은 목자가 되기로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었다.

우리 2교구 목자들은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 것처럼 목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생명과 풍성한 꿈을 나누며, 우리 밖의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며 목원의 형편을 알아 눈물을 씻어주고, 길 잃은 목원을 찾아 나설 것을 다짐한다.

| 2교구 목장으로 양민 |



목양장로의 목장을 시작하시는 각오와 감회

목양장로라는 직책은 또 다른 섬김이기보다는 도전으로 다가왔다. 전에 구역장일 때 몇 명 안되는 구역 식구도 제대로 인도를 못했던 내가, 목양장로의 직책을 선뜻 받아드리고 보니 그 직책을 감당할 생각에 겁부터 나고, 주님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밖에 없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교회의 올해 비전이 되는 목장의 목양장로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담임목사님과 교구 목사님을 잘 보필하면서 목자들과 목원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shepherd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1월17일 목자사전모임 때 처음으로 7교구 강윤호 목사님과 목자님들이 같이 모여 인사했지만 서먹하기도 하고 목양장로로서 어떻게 7교구 첫모임을 이끌어야 할지 막막하고 자신이 없었다. 2월 1일에는 교회에서 목자큰모임 후, 7교구 목사님, 목자님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더 잘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됐다. 그리고 2월 15일 7교구 목장의 본을 보기 위해 먼저 내 집을 개방하고 목사님과 목자님들을 초대했다. 예배와 목원 배정을 위한 협의 후 각자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렸고 앞으로 이루어질 목장의 모습이라는 예상에 하나님께 어주시는 큰 기쁨과 감동을 느꼈다.

아직도 목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잘 매칭 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좋은 교구와 목자님을 하락하셨음에 감사함이 넘쳤고 이 모든 일을 나 흔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느꼈다. 앞으로의 목장 모임 그리고 우리 7교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기대가 너무 크다.

| 7교구 목장으로 장태수 |



선한목자들의 푸른 초장, 목양 5교구의 꿈

목양5교구는 교회에서 한강을 건너는 강북지역으로, 동과 서로 성동 동대문에서 서대문 마포, 북으로는 중구 종로 성북 강북 은평구를 지나 고양 일산 등지까지 이르는 활발한 경지이라 얼핏 척박할 것 같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황금초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신양 경륜과 젊음이 균형 이룬 목자들의 열심이 분명 좋은 초장으로 가꿀 것이요, 둘째, 예배와 말씀은혜를 사모하며 교회 위해 오래 기도해온 신실한 성도들의 지역이며, 셋째, 교회 침침들이 즉 전파되어 최선 다했을 협력하는 순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5교구의 첫 목양 장로로 임명될이 너무도 과분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여, 기도로 5교구 목장 내일의 모습을 꿈꿉니다. 목장을 위한 꿈은 첫째, 선한 목자들 양떼 절 돌보며 잃은 양, 숨은 양들 힘써 찾고 찾아 깨우고 일으켜 분기시키는 부흥의 목장 둘째, 담임목사님 말씀의 꿀을 바르게 나누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 받아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목장 셋째, 눈물을 닦아주며 보살피는 목자들의 아름다운 섬김 소문이 자자한 목장들 되는 것입니다.

주님! 꿈을 크게 가지라는 담임목사님 말씀 좋아 적어 본 꿈입니다. 우리 목양 5교구 선한 목자들이 양떼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기로 인도하는 길에 때로 혼란과 골짜기를 만날지도 주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5교구 목장 부흥이 밀알 되어 '놀랍게 부흥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 5교구 목장으로 강태립 |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저는 20대 청년 때 침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교사상이 깊은 종가의 아버지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사셨던 시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시아버지께서 펍박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오면서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으나, 마음으로만 갈망할 뿐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혼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저는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의 권유로 온누리교회를 다니던 중 성령집회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공부와 여러 가지 스쿨 등을 통해 하나님과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저를 만나주신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금요성령집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한번 신앙생활의 변화를 느낍니다. 이제 저는 감사하며 매일 아침 말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눈을 뜨면 일어나자마자 TV 시청을 했었지만, 지금의 저는 말씀과 찬양으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펍박을 받

으시면서도 묵묵히 신앙을 지켜오시던 시어머니께서 작년부터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저는 '주님! 어머니께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일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신앙을 바라보며 아버님과 온 가족이 마음 문을 열었고, 지금은 모두 주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또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지방에 분점 하나를 넌 뒤, 분점 사장님에게 전화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중 사장님의 위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았습니다. 그 때 저는 하나님께서 왜 사장님과 만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치료를 위해 서울 소재 병원으로 오게 되자, 저는 매일 병문안을 하며 복음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믿지 않던 사장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교회 서정호 목사님을 통해 병상에서 약식침례도 받으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고

사랑선고를 받았던 말기암 환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 주



님께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고백하며, 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3차 항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기적 같은 상황을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열정적인 강남중앙침례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으니 복음을 더욱 힘 있게 열심을 다해 전하며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 진경희 성도 |

"열매를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가정과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새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기본 소식 한 가지는 2년 가까이 기도하던 경육자매와 아이들이 예수님이 믿기로 하였습니다. 복음을 믿기 어려웠던 가정이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명절에 과일 한 상자를 사서 사업장에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주일날 감사하다고 교회로 와서 인사 도하고 식사도 함께 하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또 한 가지 기본 소식은 준희 형제 어머님께서 20년 넘게 주님을 떠나 있다가 이번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님이 믿기로 하셨습니다. 또 준희 형제와 함께 일하는 승우라는 청년이 있는데 어릴 때 교회에 몇 번 가보고 그동안 믿음 없이 살다가 이번에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분들이 계속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국 목사 |



전도된 청년들과의 예배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자' 2020년 3회 연탄나눔 봉사(남전도연합회)



우리교회 남전도연합회는 2020년도 "VIP 100명 모셔오기"를 목표로 한 마음을 품는 남전도회를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하였다. 1월 18일(토) 남전도연합회 회장 장석진 장로를 비롯한 각 전도회(11~19전도회)별 자율 지원자 34명이 구로구 오류동 극빈 4가구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남전도연합회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남전도회"의 실천사항으로 새해 나눔의 첫 봉사로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류동 극빈층의 4가구에 전달된 물품은 연탄 각 250장, 라면 1박스, 세제 1박스의 물품으로 많지는 않은 물품이었지만 받으시는 분은 감사로 마음이 뜨거워졌고, '강남중앙침례교회 남전도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복음의 전파가 되었다.

2020년도 봉사 사업 재원은 각 남전도회별 회비 중에서 '월정액'으로 마련되었으며, 봉사 및 선교 비용을 주 사용처로 하기로 하고 이번 '연탄나눔 봉사'가 그 첫 사업이 되었다. 결국 우리교회의 남전도 회원들 모두가 직·간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자"는 구호의 실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 마음'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담 이후 지속되는 죄와의 인연을 끊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남전도연합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 봉사 사

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 신앙생활이란 단순하게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연탄나눔 봉사는 이웃사랑 나눔, 복을 실천의 한 장으로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한마음이 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남전도연합회 임원진은 이러한 봉사에 실천으로 앞장서 준 사람들이 오늘의 봉사자들이고 복을 실천의 선도자들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3남전도회는 마석 기쁨의 교회 등 여러 곳에서 차과·전도 봉사, 비즈 공예, 교회 수리 및 보수,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 어린이 돌보기 등 그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를 매월 실천하고 있는 가장 활성화된 전도회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남전도연합회의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한다.

남전도 연합회 장석진 회장은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는 남전도회의 아름다운 사역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남전도회원이 되기를 바란다.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두루두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봉사의 기회를 자주 갖고 더욱 부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남전도연합회가 되기를 기도하자"고 당부하였다.

올해 연탄나눔 봉사는 과거에 비해 모든 참가 회원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율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봉사였다. 다만 연탄 수량이 조금 적은 것이 아쉬워 임원진들은 "내년에는 연탄 수량을 더욱 늘려서 대상 가구도 늘리고 남전도 연합회원도 대다수 참여할 수 있는 연탄나눔 봉사로 만들어보자"며 봉사 후 자체 회의에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남전도 연합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 염대건 집사 |



남아공에서 온 편지



"나의 꿈을 지켜주세요"

남아공 학기는 4학기제로 1월에 첫 학기를 시작합니다. 늘 매년 1월이 되면, 고아들과 한부모를 우선으로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복 및 학용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교회의 특성상 성도들의 90%가 한부모 및 고아 가정이라서 충분하지 못한 재정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기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현지 담임 목사님과 주일학교 담당자와 기도함으로 고심하며 신중하게 이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 1월 교회 봉사와 섬김에 성실했던 한 성도가 2년째 자신들의 아이들이 제외된 것에 대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교회 교인들과 아이들 앞에서 그 분을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당황스럽긴 했지만 한 성도 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마음이 더욱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가진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장학사업입니다. 가난, 질병, 배고픔, 부모잃은 아픔 등이 같은 무거운 현실 앞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품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습니다. "We need you Lord(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늘을 향해 소리 외치며 부르는 아이들의 친송에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선교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있지만 끈으로 묶어서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아이들의 내면이 화려하고 멋지게 꾸며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는 아이들을 위해 계속 중요해주세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현이의 베스트 프랜드가 남아공을 떠났습니다. 외동이어서 더욱 외로움이 많지만 잘 견뎌내고 있고, 학교생활도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또 다른 힘은 가족인데, 저희 가족이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더욱 견고하여, 훈들림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 김성준 / 송우나(수현)선교사 |



공부하는 아이들



낡은 지지대



주일학교 칠판



장학사업

교회창립 44주년에 맞춘 44줄 쓰임은혜 감사기도

1 씀
2 쓰임
3 씀이란
4 쓰심이요
5 쓰임이란 건
6 사용이 되는 것
7 하나님 쓰심이다
8 그 뜻대로 쓰시는 씀
9 뜻 따라 사용되는 쓰임
10 어떠한 쓰심에 쓰임 될까
11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실까
12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쓰시리
13 어떻게 기쁘시게 하면 쓰여질까
14 말씀 순종의 삶 살면 쓰임 받으리라
15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16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에
17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과 이웃사랑 삶이리
18 그러면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19 나 스스로의 생각에도 너무 부끄러울 때쯤이다
20 그렇다면 이 모습대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지 않나
21 주님 저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힘 주소서
22 예배에 전심亏하고 말씀 더욱 가까이하기 원합니다
23 먼저 나라위해 기도 쉬는 죄 범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24 우리 대한민국은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법과 정의가
25 강물같이 흐르고 자유 민주주의가 더 흥왕하도록 도와주소서
26 튼튼한 안보위에 평화통일의 날 속히 선물해주시길 소원합니다
27 주님 심히 사랑하시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위해 간구하옵나니
28 주님 사랑의 마음 가득품고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뜰뜰 응쳐
29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상명령을 쫓아 한국과 미국과 세계를 아우르는
30 열방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행전 교회행전 새 역사 이어쓰는 교회
31 마지막 때에 귀하 쓰임 받으며 사명 넉넉히 감당할 인재들 가르쳐 잘 양성하여
32 하나님 쓰시려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모두 자원해
33 보내시는 곳마다 옥토 만들고 생명씨앗 심어 의의열매 오십 배 백배 풍성히 거두어
34 하늘 곳간 가득 채워 주님 기쁨 이기지 못하게 사용되는 쓰임 청찬교회 되게 하소서
35 온 성도 기도로 준비하는 새 성전도 순직하고 아름답게 건축되어 큰 쓰임 있길 원합니다
36 특별히 맥주부터 추수감사까지 1 5 3 감사 대행진에 지금껏 받은 은혜를 추억해 봅니다
37 1대 김충기 목사님 무원과 성령 충만 칠판설교 2대 피영민 목사님 보배자성 개혁 강해설교
38 3대 최병락 담임목사님 선대 두 분 장점 조화된 주제 감동설교로 큰 은혜 받음을 감사드립니다
39 제가 우리교회 41 번째 신앙생활에서 결혼도 하고 집사와 구역 지역장 친양대 교사 교무부장과
40 남전도회장 연합회총무 대학처장 이후에는 장로로서 수양관과 교회사무국장에 12년 쓰임 받고
41 경조위원장과 예배위원장으로 섬기다 65세에 은퇴하며 원로장로로 추대된 것도 참 감사드립니다
42 또 청와대 공직 25년 여섯 대통령 모시며 신우회 창립해 회장으로 섬기고 이사관 명퇴까지 도우신 주님
43 지금은 그레이스 친양대로 주일 1부 예배에서 주님을 친양하며 따뜻한 첫 설교 말씀 받는 은혜를 누림 속에
44 목욕 장로로 섬기며 가는 선교에 도고와 작은 정성 보태는 삶 베푸신 은총에 감사의 기도 올리옵니다

제1회 쓰임수상자 글 기도문 부분



강대립 원로장로

함께하시지 않으시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 날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와 친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흉흉하고 혐한 세상속에 살 때에 그 말씀 불잡고 좌로나 우로나 차우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향기를 한껏 발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의 언행을 보고 “저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면 믿어보고 싶다”고 결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게 하소서.

아빠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다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며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 아버지 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나님만을 분도만도 못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시니 경외하고 존귀케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덕영 권사



역대하 개론6 (13~15장)

I. 먼저 역대하 13장은 아비야왕이 여로보암과 전쟁하여 불리한 여건에서도 승리한 스토리이다.

1.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이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택한바 된 큰 용사 80만이라고 했다. 숫자도 열세였고 전력도 열세였다. 불리한 여건에서도 아비야는 에브라임 산중 스마리암 산에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를 향하여 명연설을 하였다.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2. 아비야가 연설하는 도중에 여로보암은 유다군대의 뒤편에 복병을 두었다. 그러므로 유대군대는 앞에도 여로보암의 군대가 있고 뒤에도 여로보암의 복병이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군대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온 유다사람이 소리 질렀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군대를 유다군대에 붙이심으로 여로보암 군대 50만이 도륙 되었고 여로보암은 성읍들을 빼앗기게 되었다. 아비야왕이 승리한 원인은 18절이다.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했다.

II. 역대하 14장은 유다의 3대왕인 아사왕 치리 초기10년의 평안을 서술하고 있다.

1. 아비야왕의 후계자인 아사는 41년 통치했는데 전반 36년 동안은 홀륭한 왕이었고 특별히 전반 10년은 평안하여 아무런 쌔움이 없었다. 평안했던 원인은 2절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7절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했다.

2. 아사왕은 평안한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다.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군대를 강화했다.

3. 10년이 지나자 구스왕 세라가 군사 100만, 병기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했다. 아사왕은 용감하게 응전하였고 구스왕 세라의 군대가 힘을 쓰기 어려운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다. 아사왕은 긴단하면서도 논리적인 기도를 하였다.

III. 역대하 15장에서 오랫의 아들 아사라의 예언을 들은 아사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간신히 되었다.

1. 구스왕 세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에 오랫의 아들 아

사라(여호와가 돋는 자)가 아사왕과 유다백성을 향해서 예언을 하였다. 2절이 그 예언의 내용이다. “너희가 여호와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교리). 만일 너희가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바 되시리라(약속),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라(경고)”는 내용이었다. 아사라는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이 예언이 진리임을 설명하고 있다.

2. 아사라의 예언을 들은 아사왕은 백성들과 함께 언약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였다.

1) 언약갱신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가증한 물건과 우상을 모두 제하고, 성전의 번제단을 수리하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집합시켰다(아사왕 15년 3월).

2) 언약갱신의 내용이 12~13절이다. “마음은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소님녀를 무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것이다. 백성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께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

3) 아사왕은 통치 35년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이나 아무 전쟁 없이 평안했다. 그는 운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것이 아사왕 말년의 망령된 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결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와 평안을 주신다. 그러나 이 승리와 평안이 주어졌을 때 우상숭배의 흔적이 없이 흔 없이 헌신해야 한다. 이것이 재앙 없는 축복의 비결이다.

| 편집위원 윤우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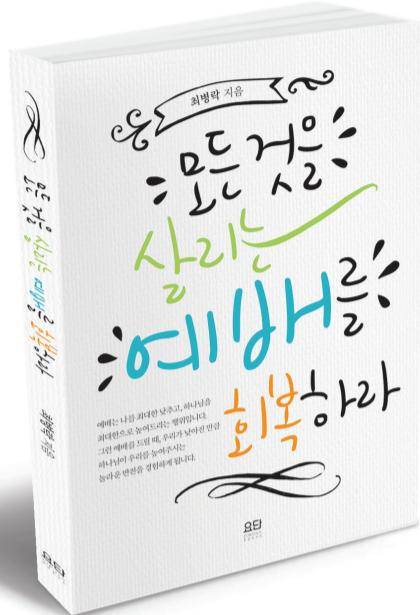
▣ 그림의 일련번호와 이에 대한 설명은 사건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 ① 앤디옥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남(행 18:22)
- ② 바울이 갈라디아와 브루기야 지역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에베소에서 사역함(행 18:23~19:20)
- ③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 돈을 벌던 온 세공업자们가 바울 때문에 수입이 떨어진 것에 격분,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 함(행 19:23~41)
- ④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함
- ⑤ 로마서를 기록함
- ⑥ 드로아에서 바울과 누가가 일행과 합류함(행 20:5,6)
- ⑦ 드로아에서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립(행 20:9~12)
- ⑧ 밀레도로 온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로 인해 슬피 웃(행 20:17~38)
- ⑨ 두로에서 제자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음(행 21:4)
- ⑩ 가이사라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이라 예언함(행 21:10,11)
- ⑪ 바울을 적대하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로마 당국이 바울을 체포함(행 21:27~36)

출처 ©
라이프 성경사전 (생명의 말씀사)
그림·설명: 성경이스프레스(규정)

| 편집위원 최준호 |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담임목사님 최신간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출간!

2020 Rise up Oikos 설교 시리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사도행전 2:42)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 1 week 왜 목장인가
- 2 week 왜 목자인가
- 3 week 왜 기도하는 목장인가
- 4 week 왜 생명을 낳는 목장인가

2020년 3월 1일(제206호)

발행인 | 최병락 담임목사 편집인 | 최재우 위원장 교역자 | 박세환 전도사·이길호 전도사 편집위원 | 김해순·김영숙·리림·박벼리·윤유진·조유희·최영수·최준호·최지영·한혜경 사진 | 정일 발행처 | 강남중앙침례교회 출판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6길 5 구독문의 | 02-546-3950 팩스 | 02-546-1302 이메일 | cisnotg@gmail.com 홈페이지 | www.kjbc.or.kr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 GNA Communications 월간 비매품 ■ 은혜지는 재생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됩니다.

주일예배·수요예배·기도회

주일	1부 예배	am	8:00	2부 예배	am	10:00
	3부 예배	pm	12:00	4부 예배	pm	2:00
	5부 예배	pm	4:00	주일 새벽예배	am	6:00
	영어 예배	pm	12:00			
수요	오전	am	10:45	저녁	pm	7:15
기도회	금요성령 집회	pm	8:30	새벽	am	5:30

교회 오는 길



세상전
건축을 위한
100만 시간 기도운동
달성현황표

교구	387209:59
남전도회	185615:28
여전도회 회장단	33792:07
선교위원회	127534:00
청년위원회	28677:15
교회학교	8449:05
총	총 시간 776103:21
남은 시간	223896:39

• 선교위원회는 매달 1575시간씩 추가

• 교구는 매년 100시간씩 추가